

광양 동호안 제방 붕괴 책임 공방 가열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인근 동쪽제방 붕괴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국정감사 대상으로까지 거론되면서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자체 진상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다, 지역 환경단체와 어민회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발단은 지난 8월23일 침식방지 위해 설치한 광양제철내 동호안 매립장 인근 제방 200여m가 바닷쪽으로 밀려나 제방 안쪽에 있던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 일부가 광양만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시작됐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987년 인근 해안 7천600여m²(230만평)에 대해

“제방위 도로개설 때문” “모래준설 영향없어”

포스코-인선이엔티 “네탓”…국회 19일 조사

광양시로부터 항후 25년간 매립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후 정부가 허가부지의 일부인 26만여m²(8만평)을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활용해오다가 2003년 민간업체인 인선이엔티가 사들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광양어민회·광양환경 운동연합 등은 “동쪽제방 공사 당시 물막이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붕괴 전부터 침출수가 조금씩 흘러나왔다”면서 광양제철소와 인선이엔티의 공동책임을 주장했다.

광양어민회 관계자는 “침출수 유입으로 인해 광양만이 오염돼 물고기

와 조개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며 “어쩔 수 없이 면바다로 나가 어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선이엔티 관계자는 “광양제철이 제방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없이 제방 위에 도로를 개설, 사용해온 때문”이라며 “초기 공사과정에서의 부실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광양제철은 이번 사태는 인선이엔티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장의 폐기물 하중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황금빛 둘러싸인 ‘한반도 마을’

구례군 광의면의 한 농촌마을이 주변에 벼가 누렇게 익어가면서 풍경에서 비리보면 마치 ‘황금빛에 둘러싸인 한반도’ 모양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례군은 “광의면 지천리

지상·지하마을 150여 가구 주택들이 친환경 황금들판에 둘러싸여 마치 한반도 지형을 옮겨놓은 듯한 이채로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위해 겸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식품위생법상 규격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업체를 언론에 공개하고 당해 식품을 폐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 계장은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 잡았으나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

며 “앞으로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 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태기자 mihang@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여수 ‘계장거리’ 원산지 특별 단속

여수시가 중국산 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여수지역 모든 계장업체가 중국산 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구속된 사건이 언론에 집중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계 판매로 물의를 빚은 여수시 봉산동 ‘계장거리’ 업체들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또 중국산 계를 판매하는 7개 업소의 계장을 수거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겸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식품위생법상 규격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업체를 언론에 공개하고 당해 식품을 폐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 계장은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 잡았으나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

며 “앞으로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 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태기자 mihang@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순천 유기농 기능사 89% 합격

제 5회 유기 농업기능사 시험에서 순천지역 농업인들이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최근 실시한 제 5회 유기농업기능사 실기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순천지역 응시자 19명 중 17명이 합격, 89%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 합격률 62%를 크게 웃돌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영농법 등 교육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구례 소리축제 “동편제 몰려 나간다~”



〈송순섭〉

서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관소리 유파의 쟁점을 이루는 동편제 관소리 축제가 전국 처음으로 구례에서 개최된다.

6일 구례군과 구례 동편제 관소리축제 추진위(위원장 유영대 국립정곡단 예술감독)에 따르면 오는 23~25일 구례를 서시천변 일대에서 구례 동편제 관소리축제를 열기로 했다.

유영대 축제추진위원장은 “동

23~25일…안숙선·조상현 등 유명 국악인 출연

편제 관소리 축제는 전국에서 이 번이 처음”이라며 “구례를 동편제 관소리의 본류지로 보고 있어 구례군이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구례군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동편제 관소리의 보존대책 마련과 함께 전통·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동편제 본류지로서의 구례군의 위상도 확실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23일 개막 첫날 유순자 명인, 이철호 명인 등 구례출신 예술인 무대가 마련되고 24일에는 우리시대 최고 명창 안숙선

과 조상현 등이 각각 춤향가와 심청가를 선보인다. 또 이날 송순섭(광주시립 국극단장) 명창이 제자들과 함께 흥보가 연창을 통해 완창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같은 날 국립 정곡단이 공연할 안숙선 작창의 창극 ‘산불’은 명품 창극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전통 풍물 길들이 퍼레이드, 농악, 소고춤, 부채춤, 남도민요, 판굿,

로 불리던 국창 송흥록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편제는 이후 송우룡·송만갑 등 3대로 이어지면서 절정기를 구가했는데 소리가 남성적이며 활기찬 것이 특징이다. 반면 서편제는 나주·함평·화순·장흥·보성 등에서 성했으며 여성적이고 섬세한 감정을 절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녹차미인 보성 쌀’

3년연속 GAP 획득

보성 대표 브랜드쌀인 ‘녹차미인 보성 쌀’이 최근 3년 연속 우수농산물 품질인증(GAP)을 획득했다.

보성군은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우수농산물 품질인증(GAP)을 받아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레이드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2006년부터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보성을 쾌성리와 육암리, 대야리 일대에 녹차미인 보성 쌀 명품단지(회장 양효석 외 86명) 10㏊ 면적을 조성했다.

또한 밭마다 최상인 흙과 풀종을 선택해 단백질 함량 6.5%이하, 원전 미을 95%이상을 목표로 생산에서 유

통까지 심혈을 기울여 지속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전남 10대 브랜드 최우수 브랜드 쌀로, 올해에는 전국 소비자 선정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되는 등 전국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 받은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순천 ‘공영 자전거’ 달린다

市, 100대 무인 대여·반납 시스템 운영

순천시가 국내 최초로 동천변에서 순천만까지 마그네슘 소재 공영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한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마그네슘 소재 프레임을 적용한 자전거 100대를 이달 중순께부터 동천 수변공원에서 순천만까지 운영하며, 중간에 5개의 터미널을 갖추게 된다.

이번 공영자전기는 100% 국내 기술을 활용했으며, 공영자전거 시스템 전문 기업인 (주)위트콤과 순천 해룡산단의 신소재 개발센터 협력업체 이릉ックス마가 합작한 신제품이다.

자전거의 무게는 13.2kg으로 기존 일부 자전거업체에서 운영중인 공영 자전거 23.5kg에 비해軽便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영자전거 시스템은 마그네슘 프레임 이외에도 자전거와 보관대 간접 장치와 전자제품 충전도 이

뤄지는 신기술 PLC(전력선 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을 도입했다.

순천시는 공영자전거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통카드가 없는 시민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동천 수변공원, 풍덕교, 이마트 앞,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 생태공원 등 5개소에 터미널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터미널에서 자전거를 대여 사용한 후 다른 터미널에 반납할 수 있는 무인자동 대여·반납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될 공영 자전거의 시민들 호응이 좋을 경우 자전거로 기반 시설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HK 호남경매컨설팅

무료 상담 ☎ 062)228-6600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의 낙찰가 제시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

잔금 대출설(낙찰가의 50%~80%)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3-1140, 5210 월 011-602-2532
(광주은행 신도로점, 대1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절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F: 383-5221 H: 011-609-5221
(이바돌김자랑 1층)

●발달임대용, 투자용)

•토지 590평/상가 4,500평(예가 210억)
보증금 100억/월세 5,000만원

•토지 590평 건물 750평(예가 98억)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월세 12억

•토지 300평 건물 725평(예가 33억)
보증금 9억/월세 1,500만원

•토 재(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